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7월 5일 (제105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태도와 언어

난세에 영웅이 나고, 엄동설한을 뚫고 동백은 피는 법!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한 젊은이의 성공사례가 나를 감동시켰다.

젊은이는 “코로나 덕분입니다.”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 덕분에 보증금 없이 백화점에 입점할 기회를 얻었다. 주위 사람들이 백화점도 불황이니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는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엮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시 91:7)라는 말씀을 근거로 “넌 안 패도, 난 패!” 하며 과감히 매장을 오픈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다른 매장에는 파리만 날리건만 이 젊은이의 매장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아 매장이 수직상승했고, 백화점 측에서는 매장을 하나 더 운영해보라는 제안까지 했다. 그 젊은이는 첫 열매를 드리며 이에 대해 상담하길래 나는 “주는 대로 다 받아라. 너의 믿음이야!”라고 답해줬다. 만물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적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만물도 긍정적으로 대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명언 중의 명언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아닌가.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할 때 하늘도 돕는다는 것이다.

남미 집회를 마치고 미국 애틀랜타에 들렀을 때 한 골프장에 갔는데 벽에 장식되어 있는 앤틱(antique)이 좋아 보여 사려고 했더니 동행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저건 장식품이라 안 팔아요.”라고 했다. 내가 가서 물어나 보라고 했더니 주인이 안 판다고 했다. 그들은 “거 봐요.” 했다. 나는 그들에게 “네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들이 팔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러나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된다.”라고 했고, 다음 날에 다시 가서 인터넷에 나온 나의 집회 동영상상을 보여주며 그것을 팔라고 했다. 그랬더니 족히 1,500달러는 나갔고 그 조각품을 단돈 15달러에 내게 건넸다. 맞다. 긍정의 사고는 긍정의 결과를 낳고, 부정의 사고는 부정의 결과를 낳는다. 나의 태도와 언어에 따라 만물은 반응하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자.

당신은 어떤 사고의 소유자인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 영상을 편집하여 주일에 인천교회에서 전국과 전 세계 생방송을 통해 다시 보여주시며,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한없이 원 없이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를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 주었건만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망각한 채 가난을 정상으로 알고, 병든 걸 정상

는 기도이다. 또한 가는 곳마다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생전 처음 가는 곳에 누가 목사님을 안다고 그 나라의 권력자들이 도울까 하겠지만,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시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상하지 못한 인물들을 붙여주셨다. 시장, 주지사, 장관, 국회의원, 군장성, 경찰 고위간부, 기업가, 심지어 대통령들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집회를 도왔다. 목사님을 수행하며 정말 신기했던 것은 목사님을 처음 보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나 좋

목사는 개신교 목사로서는 처음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였다며 기도의 응답이라고 흥분하면서도, ‘파나마의 종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종이 자국의 대통령을 축복하는가’ 하며 탄식했다. 후에 이현숙 선교사로부터의 전언에 따르면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파나마 대통령이 ‘매사 하나님 편에 서라’는 권면을 깊이 유념한 것 같으며 크게 기뻐하셨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항구여일하게 예수



후안 까를로스 파나마 대통령 예방 (대통령 집무실)

으로 알며 포기하고 좌절하는 불신앙이 그저 통탄스러운 목사님이다. 주지하다시피 36년 목사님의 사역은 믿음의 거룩한 도전이었다. 목회 초기부터 세계교구를 꿈꾸며 목회 7년 만에 메인스타디움집회를 계획하고 그 대역사를 위해 혼신을 다했던 도전, 잠실학생체육관과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체육관, 운동장, 시민회관 등을 매주 밟듯 섭렵하며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고, 2000년 인도네시아 집회를 시작으로 세계교구의 꿈을 이루어간 도전과 성취의 역사는 목사님 스스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한 믿음으로 이루어낸 결정체였다.

목사님은 외국집회를 앞두고 항상 동일한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했다. 바로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자들이 돕게 해달라

야한다는 사실이었다. 크리스천으로서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다. 정말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목사님을 좋아한다. 이 역시 기도의 응답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지난 2015년 파나마(Panama) 집회 때의 기억이다. 집회를 성황리에 마친 후 집회를 배설했던 마누엘(Manuel) 목사가 찾아와 대통령궁에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목사님은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로드리게스(Juan Carlos Varela Rodriguez)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중국의 등소평, 싱가포르 리관유 같은 성공적인 국가 지도자를 예로 들며 파나마를 최고의 국가로 성장시키는 대통령이 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축복 기도해주셨다. 마누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증거하기 위해 온몸을 불사르셨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까 노심초사하셨다. 그 심정이 여전히 불일 듯 하기에 목사님은 목회 30주년이었던 지난 2014년, 새로운 30년, 다시 뛰는 30년을 선포하시며 모두 나이 30년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보자고 역설하신 바 있다. 그리고 여전히 40대의 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신다. 오직 그날의 영광, 예수님과 한 상에서 떡을 떼며 보좌에 함께 앉아 열두지파를 심판할 영광의 그날을 꿈꾸며 달려가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 목사님을 본받아 입을 크게 열고 그날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의 간증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자!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81:10~13)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박한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시81:10~13).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들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처럼 어리석기 그 지없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를 위해 물과 먹이가 다 예비된 것처럼, 우주 안에는 인간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건만 입을 벌리지 않아 곤고하게 살고, 빈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한도 내에서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만 찾으라.’고 한계를 긋지도 않으셨고, ‘몇 번까지만 두드리라.’고 횟수를 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입을 찢어지도록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왜 입을 못 벌리는지 압니까? 왜 못 구하는지 압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상식이란 잣대로 하나님을 재기 때문입니다. “아, 이걸 구해서 될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라도 절대 해결 못해.” 하며 자칭 하나님이 되어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곧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쥐꼬리만 한 지식이나 상식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며(눅 18:27), 그가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神妙莫測)해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시139:14). 또한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달리 높디높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사55:8~9). 제 아들도 저를 이해 못하는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했

니 선천적 소경이 눈을 뜬 일, 이해 안 되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가 살아나고, 마리아가 사내 없이 아이를 낳은 일도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러나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라고 순종하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론과 논리 대신, 지식과 상식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이루시니”(사55:11)고 하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라”(눅 1:37)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점차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4~6). 이는 사도 바울의 화려한 이력서입니다. 누구와 견줘도 풀리지 않을 만큼의 지식과 상식이 풍부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3:8~9),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이것을 버려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5).

하나님 앞에서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되세요(마11:25). 어디 아이들이 부모 주머니 사정 봐줍니까? 뭐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밥 안 먹고 뺑깡을 놓습니다. 너무 비싸니 다른 거 사준다고 하면 길에 드러누워 떼굴떼굴 구르며 울어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정 봐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을 크게 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

고, 달라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

안 돼서 못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다 주려고 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마7:11)?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이론, 논리를 버리세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 무식하다 할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러면 경수가 끝난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히 11:6). 그런데 믿음이 됩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것, 누가 봐도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크신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을 인정한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를 이뤄주실 것입니다. 암을 낮게 해달라고 하세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좋은 집 달라고 하세요. 유학 보내 달라고 조르세요. 내 형편 보지 말고, 세상사람 말 듣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빛 때문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

자 엘리사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왕하4:3).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많이 빌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그릇만큼 기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을 조금 준비하니 그것밖에 못 받는 겁니다. 종재기만한 그릇을 준비하니 그 분량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엡3:20)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고 했습니다. 그러니 입을 찢어질 정도로 벌리세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약4:3)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건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 타령이겠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 수로보니게 여인(막7),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 과부(눅18),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밤늦게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사람(눅11)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인생의 얽힌 문제가 풀어질 것이고, 빈 공간이 넘치게 될 것이며, 아픈 마음과 몸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철산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계를 교구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도 고쳐달라고 입을 크게 벌렸고, 지금은 70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40대 기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이뤄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구하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사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할렐루야!

틈을 보이지 마!

레밍 신드롬

2020년도 벌써 반이 지났다. 코로나로 날을 지새운 기억밖에 없는데 시간은 그리 훌쩍 가버렸다. 날마다 자고나면 뉴스는 세계 코로나 확진자 발표로 시작한다. 벌써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이제 유럽을 넘어 남미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단다. 국내도 지속적인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참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 모 배송업체에서 발생하여 새로운 집단감염 클러스트라며 집중보도도 되고 그랬지만, 다른 배송업체에서는 전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비교해보니 마스크착용 여부였다는 결론이다. 이는 인천의 두 교회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분명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따른 결과, 단 한 건의 감염확산도 나타나지 않은 바 있다. 목사님 말씀처럼,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거리두기 실천하면, 즉 방역수칙을 잘 따르면 감염될 이유가 없다. 수칙을 몰랐든지, 무시해버리니까 감염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감염이 멈추지 않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능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곳이면 반드시 감염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결국 틈을 보이지 않는 게 관건인 셈이다. 코로나의 전과 양상을 보면 악한 영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병은 인간의

악한 지점을 타고 들어온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그들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무시했다가는 여지없이 귀신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주는 꼴이 된다. 그리고 그 틈이 열리면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와 악한 역사를 시작한다. 성경에도 비고 소제되고 수리된 집에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이전보다 더 형편이 심해진다(마12:44~45)고 경고하지 않던가. 다른 길이 없다. 그저 규칙을 잘 따르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된다. 목사님이 시시때때로 단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된다. 문제는 듣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방역수칙을 잘 따르는 길밖에 없다. 나갔다가 오면 무조건 손 씻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되 가야 할 때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동일하다. 악한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으려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귀신의 밥이 되어 고통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의 왕도는 없다. 틈을 보이지 말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6:16~17).

Henry Han

:: To Be Succeeded ::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나의 생각과 계획, 목표를 내려놓기까지 내적 갈등이 많았다. 지나면서 보니 ‘우리 부모님들이 이보다 더한 희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정을 세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가족 간에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늙은 부모를 내다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형제간에 돈 문제로 칼부림을 하고... 이는 인성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이란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하는 것으로, 즉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말한다. 인성교육의 지침서는 하나님 말씀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우애 있는 형제가 되며, 자라서 현명한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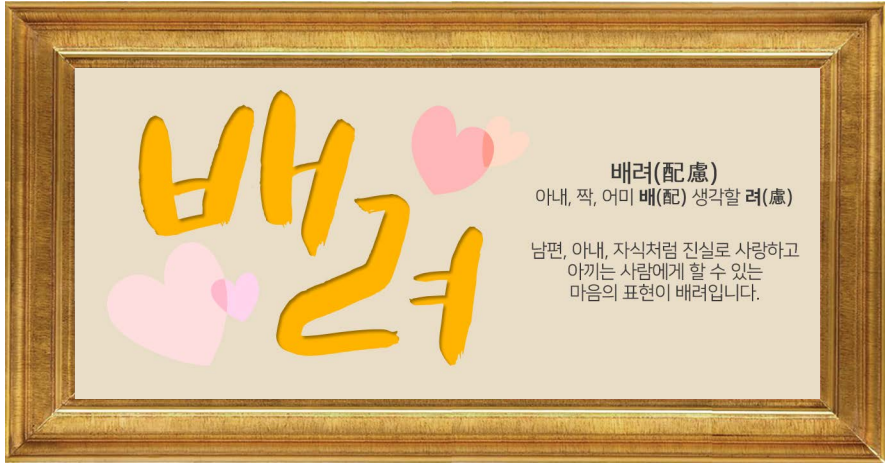
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신6:6~9)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한 가정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나중엔 부모를 위해 자식의 되갚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자식을 사육하듯 할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동학대나 현대판 고령장이 횡행하는 이유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며, 피 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아버지의 사랑의 외침이다. 기도와 말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과 가족 구성원은 현재 대와 다음 세대에 걸쳐 어둡고 메마른 세상을 비추고 적시는 빛과 생명수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국진 사모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레밍이라는 쥐과에 속하는 동물이 산다. 이 레밍은 집단으로 자살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연유를 보면 이렇다. 몇 마리의 레밍이 뛰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던 레밍들이 덩달아 뛰기 시작한다. 이유도 모른 채 말이다. 그러다 보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레밍이 달리게 되고, 달리다가 절벽이 나오면 많은 무리로 인해 멈출 수가 없게 되어 결국 집단으로 자살하는 대소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 유도 없이 무작정 다수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레밍 신드롬’이라고 한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런 식의 삶은 안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것도 안 된다. 내 주관이 분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남들이 다 ‘Yes’ 해도 내가 아니면 ‘No’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수라고 늘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아는 혼자였다. 다수가 비웃고, 놀리

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방주를 만들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850인과 홀로 싸웠다. 군중심리를 무시할 수 없었을 터, 결코 쉽지 않은 대결이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은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분명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정한 바를 추구한다. 하나님도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라도’라는 명언을 남긴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중심편집실



:: 낮은 울타리 ::

복음 영업

제 대학교 친구 중엔 교회를 다녔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안타까웠지만 차마 다시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 다녔던 아이니까, 언젠가 이 친구도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 그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륙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항상 비행기 흔들릴 때마다 죽을까봐 무서워.” 비행기 타면 많이들 하는 말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이렇게 미루다가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어색해질까, 제 말을 잔소리처럼 들을까 주저하기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여행이 끝나서도 그

친구는 결국 저와 했던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사이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었는데 얼마 전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며 생각나는 가사를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여행이 끝나고 제가 한 말들이 생각나 옛날에 들었던 찬양들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서실 때면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장엄한 선포입니다. 당장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싹을 피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며 그분을 전할 때, 예수님을 찾고 영접하는 영혼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장수정

sjjang50@gmail.com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이름을 잘 외우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한 편입니다. 회사에서 여러 번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이름도 종종 헛갈려서 언제 부턴가 이름을 쓱 빼놓고 대리님, 차장님 등 직책으로만 상대방을 부르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숫자에 약한 사람이 있듯이 저는 이름 외우기에 약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변호하며, “전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그맨 유재석을 볼 때마다 제가 감탄했던 부분은 그의 유머감각이나 체력, 책임감 같은 게 아니라 이름을 외우는 능력이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신인 아이돌 그룹이 게스트로 출연하면 대부분은 그들의 이름을 몰라서 얼버무렸지만 그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었지요. ‘오늘 처음 만난 유재석이 나의 이름을 알다니’, 당연히 감동할 수밖에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까지도 신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저기~”, “야!”라고 부르는 다른 개그맨들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을 잘 외우는 비법은 노력보다는 타

고난 기억력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독 암기를 잘하거나 암산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서 그것이 얼마나 웅장한 변명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집중하고 되풀이하는 시간과 노력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고. 하지만 바쁘기로 치면 이분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한 번 만난 정비사의 이름까지도 기억해서 다시 불러줄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는 다리가 불편한 루스벨트를 위해 특수한 자동차를 제작해 백악관에 가져갔습니다. 그날 크라이슬러 회장 체임벌린은 대통령에게 인사하며 자신이 데려온 정비사를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손만으로 작동하는 자동차 사용법을 루스벨트에게 가르쳐주었지요. 루스벨트는 체임벌린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감사를 표한 것은 물론이고, 씩스름이 많아서 뒤로 물러나 조용히 있었던 정

비사에게까지 악수를 청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워싱턴에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죠. 나폴레옹 3세는 왕실 업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저절로 외워진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이름을 여러 번 읊조려보는 수고를 했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특징이나 표정, 전체적인 외모와 이름을 연관지어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일,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이 아닐까요? 가장 쉽지만 어쩐지 가장 소홀하게 되지요. 여러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키 작은 남자를 모른 사람이 그냥 지나쳤지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지요. 그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으며, 저도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합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혹시나도 초기 증세?

들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다고 전해지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라는 말이다. 깊게 생각해볼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결과, 혁신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늘 해오던 같은 일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단기간에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긴 시간의 노력과 열정, 끈기, 도전, 용기, 운 등이 함께 필요한 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늘 똑같은 일만 하면서 제자리에 안주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내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고 바뀌어야 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변화할 때를 놓치면 또 뒤쳐질 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 자연스레 언컨택트(Uncontact, 비대면) 시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큰 변화의 회오리 앞에 과거의 것을 고집하는 고착된 사고는 개인에게나 단체에나 더는 유익하지 않다. 앞으로 바뀔 새로운 일, 직장, 사업, 관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목사님께서도 뱀과 같이, 그리고 물과 같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그래서 이제 더는 정신병 초기 증세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자. “변화를 두려워하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새삼 귓가에 맴돈다. 정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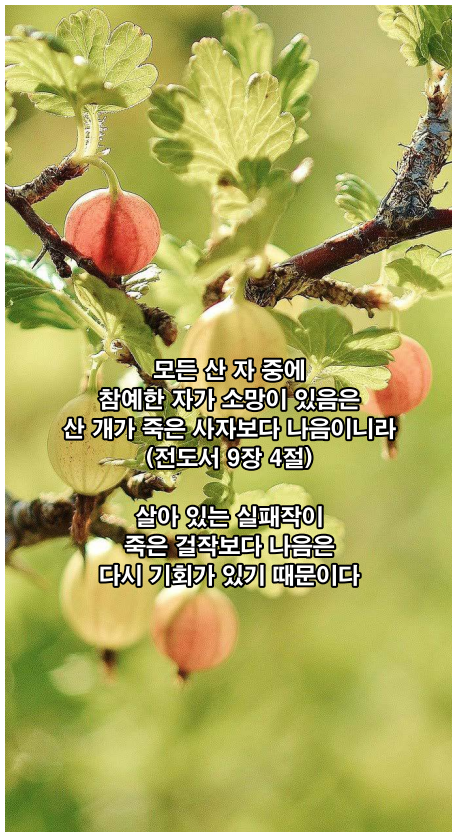
나의 라마 나뭇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저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나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있었고, 어머니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복잡한 일에 얽혀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고, 아버지의 직장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총회장 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으러 기도원으로 향한 것입니다. 매우 급박하여 미리 약속을 잡을 겨를도 없었기에 기도원에 가면 총회장 목사님을 뵈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하니 목사님께서 외출 중이셔서 사택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오시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기도원의 일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계셨고, 그 일에 몰두한 목사님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인사를 드릴 틈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저와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리에 둘러싸인 채 바쁘게 지나가셨습니다. 목사님을 반드시 봐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서울로 돌아가실 예정이라는 정보를 듣고, 기도원 정문을 나가서 마을을 지나 국도로 합류하기 전 좁은 길목에 섰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

서 기다리다가 목사님의 차가 나오면 목사님을 뵈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 차의 종류나 차번호는 몰랐고, 그저 검정 승용차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검정 승용차 한 대가 저 멀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를 막았습니다. 좁은 시골길이라 차가 매우 느린 속도로 다녀서 크게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차가 멈춰 섰다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만나주실 거라면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검정 승용차가 나올 때마다 저도 어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고 차 막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길바닥에 꿇은 어머니의 무릎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임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의 차를 보내고 몇 시간이 지나자, 또 검정 승용차가 내려왔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차를 막았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놀란 총회장 목사님께서 다급하게 달려오셔서 울고 있는 저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듬어주시며, 진심으로 위로해주시고, 사연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또 온 정성을 다해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의 축복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국가기관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셨고, 고

난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총회장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라마의 나뭇에서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삼상19:18~24).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사무엘을 멘토로 모셨던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의 라마 나뭇은 어디일까?’ 물으며 총회장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참 종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회장 목사님,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주시며, 늘 격려해주시고, 정성을 다해 축복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께 끝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글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증거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18:10) 정명관
vic-777@naver.com



모든 산 자 중에
참예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전도서 9장 4절)

살아 있는 실패작이
죽은 걸작보다 나음은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